

시·도 방북 무산·北예술단 광주 공연 기약 없이 연기

대북 제재로 광주시·전남도 남북교류사업 잇단 제동

북한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광주 공연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광주·전남지역 남북교류 사업이 대북 제재 여파로 얼어붙고 있다.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고,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북한 단일팀 출전 등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남북철도 공동조사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 독자 제재에서도 예외로 인정받으면서 향후 이 지역 남북교류 사업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중 예정됐던 방북 일정과 '가을이 왔다' 광주 공연이 무기한 연기됐다.

예초 지난 10월로 예정됐던 '가을이 왔다' 공연은 개최 여부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 전혀 없어 11월이 다 지나도록 기약 없는 상태다. 광주시는 겨울개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둔 내년으로 북한예술단 광주 공연이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선수단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도 미지수다. 광주시는 현재 수영선수단 참가도 임시 엔트리 제출시한인 내년 4월, 최종 엔트리 시한인 6월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한반도 정세 변화만을 지켜보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병훈

빵공장·산림 녹화 사업 중단

北선수단 수영대회 참가 미지수

유엔 철도조사 제재 예외 승인

국면 전환 청신호 될지 주목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가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했다. 이 부시장 일행은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 위원장과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림통철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등을 만나 '가을이 왔다' 광주공연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또 내년 세계수영대회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공연단과 기예단의 참가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속도조절론까지 제기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각종 대북 교류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꾸준히 협의 중인 만큼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감하기는 전남도 만만가지다. 전남도는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고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물꼬를 텄다.

전남도에 따르면 10·4선언 11주년 남북공동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정영재 사무총장)가 북측과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고 새 사업을 발굴, 활성화하자는 합의를 교환했다.

전남도는 남북교류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평양에 준공한 발효콩 빵 1공장에 이어, 건립이 추진되던 2공장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또 농업기술, 산림, 해양수산, 희귀광물자원, 에너지,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 밖에도 개최하는 '국제농업박람회'에 북한 사절단을 초청하고 선진농업기술 교류, 국제심포지엄 참석, 북한 농식품 홍보·판매 부스 운영 등을 제안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방북 등을 통해 모든 남북 교류 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예외적으로 승인하고 미국도 독자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하면서 막힌 교류에도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요청한 12월 초·중순 회동을 앞둔 '11월 중에 만나자'고 제안하는 등 남북 대화의 간 교류와 다른 대북 교류 민간단체 간의 교류도 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OECD 사무총장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을 만나 인사한 뒤 수행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52% '역대 최저'...민주당도 동반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해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를 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52.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9월 2주차 당시 집권 후 최저치였던 국정 지지도(53.1%) 기록을 10주 만에 갱 신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직후 65.3%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8주간 내림세를 보여 모두 13.3%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 측은 "해경공 김씨 논란 여파와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 발표, 소득 양극화 심화 보도 등 경제·민생 악화 영향으로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호남과 20대, 무당층에서는 국정지지도가 상승했으나 영남과 서울, 30~50대, 노동자, 무직, 자영업, 중도층과 보수층 등에서 두루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9.2%를 기록,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함께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1.2%포인트 상승한 22.9%로 4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로는 '최순실 태블릿PC'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0월 4주차 조사(25.7%) 이후 최고치다.

정의당은 0.6%포인트 내린 8.8%,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오른 6.0%, 민주평화당은 0.2%포인트 내린 2.2%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5·18계엄군 국가유공자 적법" 보훈처 입장 논란

송갑석 의원 "5·18 모독...입장 안 바꾸면 취소 법안 발의할 것"

국가보훈처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총괄로 진압한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광주일보 11월13일자)를 실시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법안 제·개정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국가보훈처의 의견을 물은 결과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적법하며, 계엄군 가운데 성폭력 등으로 금과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배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송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계엄군 진압의 위법성이 이미 밝혀졌는

데도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은 물역사이자 5·18에 대한 모독"이라며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한 계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은 전면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하는 등 '5·18 홀대'를 일삼았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국가보훈처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보훈처가 이번 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보훈처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경우, 민주당은 물론 야권과의 공조를 통해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

회는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어 국가보훈처 내부 개혁에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 결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르면 올해 내에 전수조사를 마치고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3년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계엄군 1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지정 현황이 전산화되지 않고 수기로 기록됐다는 점에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기권 관계자는 "계엄군의 천인공도할 성폭행과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등은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송 의원이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법안을 발의한다면 왜곡된 5·18의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청와대 "선거제 개혁, 민주당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할 것"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요구와 관련,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청와대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경기가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당내에서 벌어지는 문제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당의 틀 안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세와 관련한 질문에는 "매번 같은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일회일비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소득격차 지표가 악화하는 것

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분석과 평가가 있지만, 이를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KT아현지사 화재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책은 유영민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여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법무법인 | 에스&파트너스

광주에도 원팀(One-Team) 체제의 로펌이 출범하였습니다.

2018. 11. 1. 업무를 개시한 법무법인 에스&파트너스는 부장판사를 역임한 손진홍 변호사, 부장검사를 역임한 송길용 변호사가 하나의 팀으로 기업법무 등 송무와 자문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Needs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손진홍 변호사
광주 송원고, 한양대 법학과(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인천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남원시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송길용 변호사
광주조대부고, 조선대 법학과(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광주고검 검사, 대검 검철연구관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 에스&파트너스
SONG·SON & PARTNERS

법률상담 문의. 062-229-8300
Fax. 062-229-8301 E-mail. snp8300@naver.com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 3·4층 (자산동)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화복·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